

‘갤러리 봄’ 개관... 예술의 거리에 ‘봄’이 오나

차생원 건물 리모델링
신진 작가 위주 전시
10일까지 주라영 개인전
신양파크 ‘갤러리 S’도
예술의 거리 입성 준비

지난 1980년대 초 형성된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는 예향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적 문화 명소였다. 한뎀 화랑, 표구점, 소극장, 전통찻집 등이 100여개 자리잡으며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꼭 들려야 하는 코스였다. 하지만 미술시장 불황이 닥치며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었고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고 있는 갤러리는 손에 꼽힐 정도다.

최근 이곳에 새 갤러리들이 문을 열었거나 연다는 소식이 들려며 예전 활기를 되찾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갤러리 봄’(대표 최정화)은 개관한 지 3주 밖에 되지 않은 예술의 거리 막내 갤러리다. 거리 중간에 있는 공동주차장 옆 차생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5일 방문한 갤러리는 하얀 색 외관과 양 옆에 고풍스런 전등이 달린 회색빛 출입문이 인상적이었다. 벽 한편에는 흥원철 작가가 철조각을 이어붙여 고딕체로 만든 ‘봄’ 글자가 설치돼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약 40평(132㎡) 규모 전시장이 넓게 펼쳐지며 시원스런 느낌이였다.

지난달 김평준 작가 개인전에 이어 현재 갤러리에서는 주라영 작가 개인전 ‘Beyond Here & Now-Wonderful Life’가 10일까지 열린다. 주 작가가 5년 만에 광주에서 여는 개인전으로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Beyond Here & Now’는 현대인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거울을 이용해 달려가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꽃을 한아름 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했다. 파랑, 연두, 빨강, 분홍 등 다양한 색으로 꾸민 등장인물은 하얀 벽과 조화를 이루 도드라져 보인다.

최정화(여·33) 대표는 “다양한 형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기본 기둥만 놔두고 내부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며 “지



최정화 대표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옛 차생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달 문을 연 ‘갤러리 봄’.

난 11월1일 공사를 시작해 약 한달 만에 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갤러리의 ‘봄’은 크게 두가지 뜻이다. ‘봄’이라는 의미와 인생 최고 순간을 상징하는 ‘봄날’이다.

우제길미술관, 나인갤러리, DS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최 대표는 평소 생각했던 전시를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갤러리를 개관했다. 앞으로 대관을 비롯한 기획초대전을 꾸준히 열 예정이다. 서울·부산 등 타 지역 작가와 갓 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 위주로 전시회를 열어 차별성을 들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갤러리 문턱을 낮추는 게 목표다.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입구 옆에 테이블을 놓아 둔 까닭이다. 인근 상가들과 연계해 갤러리 앞 골목(길이 약 30m)을 체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내년에는 ‘나비아 공동가자’ 행사 참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갤러리 옆에 조그만 카페도 개장해 부담없이 사람들이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직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적고 운영 비용도 부담되지만 곳곳이 버티다 보면 ‘봄날’이 찾아오겠지요.” 문의 010-9078-1800.

신양파크호텔 로비에 자리한 ‘갤러리 S’(대표 이명자)도 예술의 거리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평(92㎡) 규모 덕성한지빌딩 자리에 동지를 틀고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명자 대표는 “미술 중심지 ‘예술의 거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며 “거리를 활성화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작가를 상설로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50세를 맞는데 새출발 하자는 개인적 차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갤러리는 지역 작가 전시 뿐 아니라 기업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여느

장소보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 몇몇 업체에서는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갤러리S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초대전만 하고 싶었지만 운영을 생각해 대관도 할 계획이다”며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다. DS갤러리는 덕성한지빌딩이 옮겨올 때 당장 문 닫을 예정이다. DS갤러리는 덕성한지빌딩을 운영하는 김중중 대표가 약 4년 전 문을 열어 꾸준히 전시를 열어 온 공간이다. 김 대표는 “예술의 거리에 빌딩이 옮겨갈 마땅한 자리가 없어 일단 갤러리 자리로 이전하게 됐다”며 “공간을 구하는 대로 예술의 거리에 다시 문을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중중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예술인회 발행 계간지 ‘소나무’ 2016 겨울호 발행

새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소나무’ 2016 겨울호(통권 제16호·사진)가 나왔다. 겨울호 특집은 올 가을 곳곳에서 펼쳐진 도심축제를 총망라했다. ‘특집1’은 비엔날레의 계절을 맞아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 현장을 돌아봤다. 도심속 여유로운 미술휴식으로 도시문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소개했다. ‘특집2’에서는 가을 도심에 물결친 대표 축제 현장의 모습을 전한다. 추억의 총장 축제, 금남로 프리즈페스티벌, 굿모닝 양림, 무등울림 등 지역민의 끼와 향수, 가을 감성을 자극한 축제현장을 소개한다. ‘문화마을을 찾아서’는 남신희 기자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살아숨쉬는 근대미술관’에서는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아산 조방원의 작품세계에 대해 들려준다.

표지화는 의재 허백련의 작품으로 꾸몄다. 속표지의 ‘내 그림이 최고로 보일 때는 손이 앞서간 것이고, 그림이 적게 보일 때는 눈이 앞서간 것이다’는 의재 어록이 생각의 여유를 안긴다.

김중중기자 kimyh@kwangju.co.kr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전곡 감상

8일 전남대 예향홀

바리톤 박흥우·피아노 신수경

겨울이면 항상 찾아오는 작품들이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그리고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다.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리톤 박흥우씨와 피아니스트 신수경씨가 전남대 피아노연구소 주최로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회를 갖는다. 8일 오후 7시 전남대 예향홀.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백조의 노래’와 함께 슈베르트 3대 가곡집으로 잘 알려진 ‘겨울나그네’는 독일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총 24개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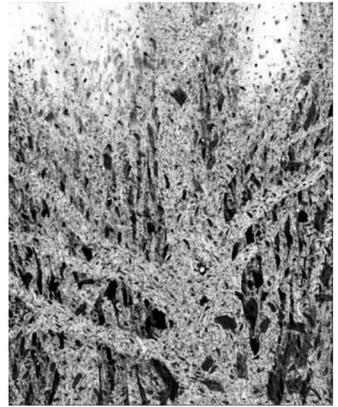
신씨는 서울대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리노이 음대에서 석사,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독주회 40여회 개최한 신씨는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전남대 피아노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



바리톤 박흥우 피아노 신수경

주자’로 꼽히는 박씨는 중앙대, 비엔나 국립음대 대학원 리트 오라토리오과를 최우수 졸업했으며 독일정부 문화사훈을 받았다. 동아콩쿠르에서 1위 입상했으며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비롯한 독집음반을 7종 발매했다. 예술가곡 전문연주단체 ‘리더라이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신씨는 서울대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리노이 음대에서 석사,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독주회 40여회 개최한 신씨는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전남대 피아노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



정인수 작 ‘나무 그리고 숲’

한국화가 정인수 ‘제28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대상

최우수상 황지원씨 수상

한국화가 정인수(40·광주)씨가 ‘제28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대상(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최우수상(200만원)에는 황지원(25·광주), 우수상(각 100만원)에는 이수경(25·부산)외 14명이 받았고 특선·입선 등 총 227점이 입상했다.

박광식 심사위원장은 “대상작은 새로운 발상, 치밀한 구도, 조형요소들이 매우 훌륭해 앞으로 작가로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김중중기자 kimyh@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우수상은 이수경씨의 ‘0028’ 등 11명이 수상했다. 기업인후원특별상(각 50만원)은 김윤아(22·경북) 씨의 ‘이미지’ 등 14명이 받았고 특선·입선 등 총 227점이 입상했다.

박광식 심사위원장은 “대상작은 새로운 발상, 치밀한 구도, 조형요소들이 매우 훌륭해 앞으로 작가로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은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김중중기자 kimyh@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하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